

“나는 커서 지스트 같은 공대 갈래요”

## GIST, 초등학생 대상 'AI 과학캠프' 개최

### AI 특화 체험으로 어린이 과학기술 진로 탐색 지원

- MOU 체결 기관인 육군 상무대·광양제철 추천 초등학교 4~6학년 60여 명 참여, 미래 과학리더 꿈 심어
- AI융합학과 윤정원 교수 특별강연, 재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 실습, 로켓 발사 체험, 슈퍼컴퓨팅센터 견학 등 연구중심대학 캠퍼스를 누비며 다채롭고 특별한 체험



▲ GIST 사회공헌단이 MOU 체결 기관의 초등학생 자녀를 초청하여 '과학캠프(AI과학캠프)'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여름방학을 맞아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발굴하고 이공계 진로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GIST와 함께하는 AI 과학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캠프'는 GIST의 사회공헌단 '피움'이 운영하는 지식나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GIST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캠퍼스로 초청해 진행됐다.

올해 캠프는 MOU 체결기관인 육군 상무대(7월 24일)와 광양제철(8월 12일)의 추천을 받은 약 6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맞춤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참가 어린이들은 GIST 교수진의 AI 특강을 비롯해 캠퍼스 투어, 재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실습, 연구실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의 강의실·연구실, 캠퍼스를 직접 체험했다.

첫 순서로 AI융합학과 **윤정원** 교수가 **'의료로봇 핵심기술과 미래: 입는 로봇 및 나노로봇'**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윤 교수는 의료기술과 AI 로봇의 융합 연구 현황을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쉽고 흥미롭게 소개했다.

특히 입는 로봇(웨어러블 로봇)의 실제 사례와 나노 단위 의료 로봇 기술이 영상으로 소개되자, **어린이 참가자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진 **'멘토와 함께하는 키트 수업'**에서는 GIST 재학생 멘토들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를 직접 조립하고 **코드를 입력해 작동**시키는 실습을 통해 **AI 기술의 원리를 체험**했다. 자신이 만든 미니 자동차가 장애물을 피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본 어린이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을 키웠다**.



▲ GIST와 함께하는 AI과학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를 완성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우주 발사체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GIST 학생동아리 **'행성탐사연구소'**가 **진행한 로켓발사 체험**에서는 **모형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을 관찰**하며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실습 후에는 **캠퍼스 내 첨단 연구시설 공간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참가 어린이들은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 **'TOP500'**에 오른 **'드림아이(Dream-AI)'**를 운영하는 **슈퍼컴퓨팅센터**를 방문해 **대형 연산 장비의 실제 활용 현장**을 살펴봤다.

이와 함께 **중앙도서관과 주요 건물**을 둘러보며 **강의실과 학습 공간** 등 캠퍼스 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도 제공됐다.

이번 캠프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GIST가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과학 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재학생 멘토들이 또래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참가 어린이들에게는 과학을 향한 호기심과 도전 의지를, 학부모들에게는 자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심어 주었다.**

김재관 대외협력처장은 "이번 AI 과학캠프가 어린이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마음껏 키우고, **미래의 '과학 리더'를 꿈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GIST 사회공헌단 '피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이공계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밝혔다.